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h1 style="font-size: 48px; margin: 0;">새고려신문</h1>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9년 3월 8일(금) ..(음력 2월 2일).. Пятница 8 марта 2019г. № 9(116826)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사할린 여성들에게 '세계여성의 날' 축하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지난 6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브센터에서 3·8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사할린여성들을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 사할린주두마 안드레이 하포츠킨 의장, 러시아정교회 유즈노사할린스크 및 쿠릴 쩌혼 주교가 환영하며 따뜻한 축하를 전했다.

행사에서 주지사 대행의 감사장 수여식도 있었다. 감사장은 유즈노사할린스크 경찰 순찰부 옥사나 고르제예와 수석 감독관, <사할린 섬>체호브 책 박물관 예브게니야 피르소와 관장, <가족 알파벳>사회단체 굴나라 민코와 회장, 사할린주 임상병원 타치아나 수르자 신경과 과장, 유즈노사할린스크제2김나지아 갈리나 페센코 교사, 키롭스코예 보육원 안나 피수넨코 교사가 받았다. 이날 재즈 악단, 무용단, 가수, 배우들이 멋진 공연을 선사했다.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10일, 마슬레니짜 - 겨울 전승 축제 개최

오는 10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마슬레니짜(겨울 전승 축제)를 기념한다. 이와 관련한 축제는 가가린 휴식공원의 여러 곳에서 펼쳐지는 가운데 다양한 행사들(박람회, 공연, 오락, 놀이 등)은 12시부터 시작되어 15시에는 웨르흐네 호숫가에서 마슬레니짜의 짙은 인형 태우기 행사가 진행된다.

사할린주, 전국 학력경시대회 지역 단계에서 120명 이상 학생들 시상

지난 5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주 학력경시대회 시상식이 있었다. 이날 학력경시대회의 수상자 94명과 우수자 27명에게 시상했다. 우수한 실력을 발휘한 학생들에게 주지사 대행 명의로 세르게이 나우모브 주정부 부수상이 축하인사를 전했다.

지역단계 경시대회는 17개 과목에서 1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17개 지역을 대표하는 학생 478명이 참가했다.

이번에 우수자 중에는 몇 개 과목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학생도 있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김나지아의 안젤리나 보카첵스카야 학생은 문학과 사회학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리체이의 김 율리아 학생은 생물학과 생태학에서 우승하는 등 다양한 실력을 발휘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드리는 축하문

친애하는 사할린주 여성 여러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진심으로 여성 여러분에게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량하고 밝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친지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선사하고 가족의 가치를 소중하게 보전하며 아름다움과 배려로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또한 사할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온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사회적 사업, 전문적 및 예술적 주도를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친애하는 여성 여러분, 명절을 축하드립니다!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권한대행

Дорогие жительниц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мите искренние поздравления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женским днем! Все самое доброе и светлое в этом мире связано с вами, милые дамы.

Вы дарите любовь и ласку своим близким, бережно храните семейные ценности, радуете нас красотой и вниманием. И, конечно, многое делаете для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благополучия всех его жителей.

Мы всегда будем благодарны вам за это. Продолжим поддержива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и творческие инициативы, обществен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материнский труд.

Будьте счастливы! И пусть в ваших семьях царят мир и любовь! С праздником, дорогие женщины!

В. Лимаренко,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 국제기능올림픽(월드 스킬스) 지역단계에서 157명 시상

3월 1일부터 5일까지 사할린에서 Worldskills(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 지역단계가 개최되었다.

올해 행사에는 전문가들과 관람객, 학생들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참가자 중 157명이 메달을 차지해 상위권에 들어갔다. 챔피언십대회는 5일간 47 전문영역에서 268명의 참가자들이 경쟁하고 235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했다. 경연 지역도 확대되어 21개의 행사장은 먼 지역을 포함해 오하와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크에서도 진행된 가운데 올해는 동메달을 43명, 은메달은 47명, 금메달은 67명에게 수여했다. 시상은 지난 5일 스톨리차 비즈니스 센터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이뤄졌다.

사할린주 정부 세르게이 나우모브 부수상 대행은 행사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이들에게 사할린에 꼭 필요한 청년 인재라고 했다. 지역 단계의 우승자들은 지역대표로서 최종결승대회에 참가할 권한이 주어지는 준결승대회에 출전하게 되는데 3월 - 4월간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2019년 전국 기능올림픽 최종결승대회는 카잔에서 개최된다. (취재: 이예식 기자)

새고려신문

2019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 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집에는 안녕과 부유함, 곁에는 가족·친지·친우들

박위석(소피아 블라지미르나)씨는 많은 사할린 한인들에게는 아마추어 동포 가수로 알려져 있다. 고희(70세)를 바라보는 그녀는 지금 평범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1950년생인 그녀는 6남매의 가정에서 맏딸로 코르사코브구역 노위코워촌에서 태어났다. 2살 때 코르사코브구역 다른 촌, 다음 또 다른 곳으로 잦은 이사를 했다고 했다. 부친이 목재 일을 하셔서 그렇다고 했다. 1943년에 박위석 씨의 부친 박유천 씨(1923년생)는 3개월 계약으로 한국에서 사할린으로 일하러 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곳에서 자리를 잡았으나 해방 이후에 반세기 이상 그리던 고향 충청남도도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주지 못하고 4년 전에 돌아가시게 되었다.

박 씨의 부친은 항상 고향을 그리워 했다고 한다. 훗날 다행히 박유천 씨 내외는 영주귀국할 수 있었다. 먼저 인천에 거주하다가 안산 고향마을에 입주했다. 그러나 부친은 오래 살지 못하고 귀국해서 2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후 가족모임에서는 그 당시 '혼자 살던 여동생을 안산에 혼자 계신 어머니를 모시러 보내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어머니의 건강이 약해져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손자녀들을 늘 보고 싶어하던 모친은 사할린에 7-8개월에 한번 다녀가곤 했는데 모든 비용은 자녀들이 부담해왔다. 모친이 사할린에 잔류하지 못했던 이유는 질병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곳 사할린의 기후가 안 맞아서 그런지 여기에 오면 폐에 항상 물이 차 있었다고 했다. 당시 모친을 계속 모시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동생과 식당 영업도 시작했지만 박 씨의 모친은 자녀들의 효도를 기다려

8세부터 홀스크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박위석 씨는 이곳에서 조선학교 8년제도 마쳤다. 17세에는 대륙에 공부하러 갈 계획이었으나 무국적자여서 허가를 못 받아 유즈노사할린스크로 가서 상업전문기술학교에 입학했다. 전공은 산업자재 상품이었는데 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회계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 졸업하고 바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식품산업관리국에 취직해 한평생 정년퇴직까지 그곳에서 일해왔다.

정년퇴직 이후 식품상점을 열었지만 몇 년을 하다가 포기하고 말았다. 손도, 힘도 많이 가는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마침 여동생이 식당 하나를 위탁하여 운영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여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은 맛있는 한식 반찬과 러시아 요리로 알려진 <파로>였다. 박위석 씨는 <파로-2>에서 3년간 책임을 맡다가 현재는 점심식사를 위주로 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이 식당 주인도 여동생이다. 서류 책임은 모두 동생이 담당하고 있고 박위석 씨는 요리에 집중하고 있다. 직접 요리를 하는 것

이 재미있다고 한다.

박위석 씨는 '여성의 행복'은 가족에 있다고 말했다. "가족이 다같이 모일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박 씨의 가족은 남편 강상욱 씨, 외동 아들, 손녀 둘과 며느리다. 이들은 일요일마다 박위석 씨네 집에서 모인다. 토요일에 할머니 댁을 찾은 큰 손녀(5세)를 데리러 오는 아들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박위석 씨에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다.

"어떤 맛있는 걸 해 먹일까"라는 고민을 하죠.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밥상이라 더욱더 행복해요."라고 박위석 씨가 고백했다.

한식, 러시아 요리, 파이, 도너츠, 케이크 등 - 박위석 씨는 모든 요리와 쿠키도 잘한다. 식구들 모두 맛있다고 칭찬을 한다고 한다. 러시아 며느리가 워낙 한식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들의 가족이 올 때는 한식을 자주 한다고 했다.

남편 강상욱 씨와 함께 한 세월은 43년이 넘었다. 서로가 요즘 쓰는 신조어로 <썸타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생길때)중이었을 때, 명절 때 친구들과 강상욱 씨네 집을 방문했는데 그때 박위석 씨를 시아버지와 막내 시누이가 마음에 들어했었다고 했다.

박위석 씨는 시댁에 대한 말에서는 "너무 존경하고 있다."고 한다. 시댁 사람들 모두 좋은 사람들이고 태도, 행동 모두가 존경스럽다고 했다.

젊었을 때 표정 관리를 잘 못 하는 박위석 씨는 시어머니, 시누이들을 보고 많이 배웠다고 했다. 간혹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에게 잘못을 해도 한 번도 잔소리나 꾸지람을 듣지 않았다고 했다.

박위석 씨에게 반한 남편 강상욱 씨는 "다시 결혼한다면 박위석 씨와 다시 결혼할 거다."라고 고백한다. 부부는 서로 어울려 놀고 취미도 같다. 강상욱 씨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그림도 그리고 아코디언 연주도 했다. 박위석 씨의 노래 솜씨는 전문학교에서 러시아 노래를 불러온 실력으로 보통이 아니다.

사할린한인사회계에서 2000년대 초에 한 때 <청춘>예술단(단장 김부자)이 활동을 했는데 그때 처음 박위석 씨가 처음 동포들을 대상으로 무대에 섰다. 최근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회원으로 노인정 등 행사와 주여성회 행사 등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박위석 씨와 남편은 한 무대에서 듀엣으로, 독창으로 노래해 항상 무대를 사로잡는다.

박 씨는 배움에 대한 욕구도 많아서 기억력 강화를 위한 문해수업에도 다녔고 관광가이드 강좌를 수료하기도 했다. 가이드 수업도 역시 남편과 함께 했다.

이 부부의 또 하나의 공동 취미는 얼음 낚시다.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간 날에도 박위석 씨는 아침부터 얼음낚시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다정한 부부의 집에는 항상 손님이나 친구들이 놀러오는 것을 반기며 즐거움을 나눈다. 박위석 씨는 "집에는 안녕과 부유함이 늘 있고, 곁에는 가족만 아니라 항상 친지, 친우들이 있다면 더 행복할 게 없다."라고 말한다.

(배순신 기자)

김동철 의원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사할린동포 2세의 귀국을 허용하도록 하고,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할린동포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1993년 한국은 사할린 동포 문제가 일본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일본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해 1994년부터 영주귀국사업에 대해 합의했으나, 이후 사할린 한인 1세와 그 배우자, 장애인 자녀만을 영주귀국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직계비속과의 '제2의 이산'이 지속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할린 동포지원회를 법적으로 구성하자고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있으나 사할린 동포에 집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타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할린 동포의 피해를 집약할 수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피해조사 및 지원위원회'는 존속기관 경과로 해체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법률안에는 △국가가 사할린 동포와 영주귀국가족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에 상응하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함 △영주귀국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하여 주거지원 및 직업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월드코리아)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이주민 가정의 자녀를 위한 적응센터 열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처음으로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사회문화적응센터가 열렸다. <러시아에서 자란다>기획은 <에너지>사회적 주도재단의 일환으로 <사할린 에너지>회사의 재정적 후원 아래 사할린주 어린이도서관이 실시했다

다른 문화환경과 접촉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러시아어 익히기 등, 이런 문제들에 거의 모든 이주민 아동들이 부딪히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서로 만나는 첫 걸음이 중요하다.

이주민 자녀들이 스스로 편안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주한 지역의 법률과 전통을 지키는 것도 적잖이 중요하다. 사할린 사회문화적응센터에서는 9세부터 12세까지 연령의 아동 100여 명이 러시아의 문화적 소중함을 몸소 익히고, 러시아 및 사할린의 역사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러시아 문학과 예술 관련에 참여하고, 현 지역의 전통과 생활양식을 공부하며 러시아어 말하기를 능통하도록 향상시킬 수 있다.

아동들을 위한 모든 수업은 무료다. <사할린 에너지>회사 홍보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수업은 활동교실과 게임 방식으로 아동도서관에서 일주일에 두 번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 개소식 후 첫 수업에서 아동들은 마트료쉬카 그림 퍼즐 맞추기, 지도에서 모스크바 찾기, 러시아 속담에 대한 지식과 능숙하고 빠르게 발음하는 겨루

기도 진행했다. 몇몇 수업은 견학으로 진행했는데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공원과 향토, 미술 박물관, <승리> 종합기념박물관, 아동인형극장, 기타 시설들을 방문했다.

견학 시스템은 아동들의 사회적 적응과정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아동들은 다니는 학교에서, 동갑내기 와 사귀는 반에서, 앞으로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이런 수업과 숙달과정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획의 결과로 <러시아에서 자란다>소책자를 출간할 예정이며 학부모, 교육자, 교사, 도서관 사서들을 위한 <다문화사회 여건 속에서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사회문화적응에 따른 정책 구조> 원탁모임을 진행할 계획이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работал центр адаптации для детей мигрантов

Впервы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ся центр социокультурной адаптации для детей мигрантов. Проект «Растем в России» осуществляет областная дет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пр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в рамках Фонда социальных инициатив «Энергия».

Сложность включения в иную культурную среду, освое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 с этим сталкиваются почти все дети-мигранты, и в этом вопросе важны шаги навстречу друг другу.

Немаловажно, чтобы дети из семей мигрантов не только чувствовали себя комфортно, но и соблюдали законы, сложившиеся традиции региона, куда они приезжают. В сахалинском центре более сотни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9 до 12 лет усвоят культурные ценности России, получат знания по истории России 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могут приобщиться к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и искусству, изучить местные традиции и образ жизни,

улучшат навыки владения русской речью. Все занятия для детей будут бесплатным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встречи в форме мастер-классов и игр с детьми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два раза в неделю в библиотеке. На первом занятии, после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центра, юные гости собирали пазлы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матрешек, искали на карте Москву,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знании русских пословиц и произношении скороговорок.

Некоторые занятия предполагают выезды в исторический парк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краеведческий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и,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обеда», детский кукольный театр и другие учреждения. Такой системный подход облегчит процесс социализации детей. Эти знания и навыки они смогут применять и дальше в своей жизни, посещая школы, кружки, общаясь со сверстниками.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по итогам проекта будет выпущена брошюра «Растем в России», проведен круглый стол для родителей, учителей, воспитателей, библиотекарей «Система мер по социокультурной адаптации детей из семей мигрантов в условиях поликультурного общества».

유즈노사할린스크 청년 주민들에게 <도전>게임에 참가 제안

<도전(이성, 직관, 신속함, 팀)>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청년들의 지적 게임이다. 이 게임에서 참가자들은 조국의 크고 작은 역사에 대한 지식을 발휘하고 자신의 박식함을 드러낼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추출된 세 영역의 질문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하여 상도 받을 수 있다. 게임에는 14세에서 30세까지 연령의 청년들로 구성된 팀이 참가할 수 있는데 한 팀에 6명-10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8면에 계속)

"1세대들이 겪으신 역사는 아프지만 기록하고, 보존되어야 하고 후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개최된 3.1 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박신민 민주평통 미주지역협의회 자문위원이 사할린을 다녀갔다. 위안부를 위한 활동을 비롯해 현지 한인회와 여성회의 활동에 적극 참가한 그는 이번에 사할린에서 <귀향>이란 영화와 <에움길>다큐멘타리를 소개할 기회를 가졌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위안부에 관한 활동과 사할린에 대한 소감에 대해 알아보았다.

- 박 위원님께서 왜 '위안부'를 위한 활동을 하시는지요?

'위안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대학생 때 중국계 미국인 교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책을 권해주셨고 그때 저의 경험은 충격, 분노, 혼란, 아픔, 슬픔을 모두 느꼈습니다. 하지만 몇 십년 전, 그때 저는 어렸고 지금처럼 많은 정보가 있거나 정보를 쉽게 접하고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쁘다는 이유로 '위안부' 이슈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생존자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죄송했습니다. 가슴 깊이 '위안부' 피해자님들의 아픔과 억울함을 느꼈으나 행동으로 따르고 돕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몇 십년이 지난 이후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달라스, 텍사스에서 현재 인신매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배웠습니다.

텍사스주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인신매매 범죄가 많은 주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현재 인신매매 피해자들도 '위안부' 소녀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가족이 팔아넘기거나, 길거리에서 납치되거나, 또 일자리 알선 사기 등으로 지금도 미국에서는 어린 소녀와 소년들이 또 힘없는 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위안부'이슈는 옛날 과거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었고 지금 현재에도 힘없는 약자들이 성노예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아픈 사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기막힌 것은 가해자인 일본은 반성과 사과는 커녕 세계에 돈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자기들의 전쟁 범죄와 인권 범죄들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도 일본 정부는 1년에 \$500,000,000 달러의 (\$500 million dollars) 재정을 일본 친선을 위해 또 홍보 용도에 쓰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양국가에서는 아시아 역사를 아직도 많이 모릅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강대국으로서 미국과 서양에 일본이 원하는 미화되고, 왜곡된 일본 역사와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 경험을 수치스럽게 여겨 공유하거나 기록하지 않아 더욱더 일본의 만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일본은 만행을 저



질러 놓고도 고개 들고 뻔뻔하게 세계에서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위안부' 소녀들이 매춘부였고 돈벌기 위해 자진해서 갔다고 주장하고, 강제로 끌려갔다는 증거가 없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래서 1991년 용감한 김학순 할머니께서 세계 최초로 '위안부' 피해자인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이후 대만, 중국, 필리핀, 네덜란드의 여성들이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세상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세계 시민들은 '위안부' 사실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리고 계속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지금 학자들은 200,000 명의 '위안부' 여성들이 있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학자들은 중국에서만 200,000명의 중국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갔다고 말합니다. 이 수많은 어린 소녀들이 강제로 끌려가 비참하고 억울하게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며, 공포에 떨고 외롭게 타국에서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님들의 정의와 회복을 위해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안부'나 성피해자라는 경험과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는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권과 정의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주어지기에 저 같이 아무런 경험이나 관련이 없는 분들이 더욱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알리고, 협조하여 억울한 그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정의와 명예를 회복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23분의 생존자들만이 살아 계십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건 일본 정부의 정식 사과입니다.

독일 정부는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에게 정식 사죄를 했고,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차세대에게 잘못된 역사를 바르게 교육시킵니다.

독일 정부는 역사관, 박물관도 세우고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위해 기림비도 세웁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위안부'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모든 관련된 기림비와 소녀상들을 제거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서양에서는 일본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심고, 또 2차대전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둔갑하

려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제대로 알리기가 시급합니다. 일본의 반인륜적인 만행을 세계시민들에게 알려 일본이 사죄하지 않으면 국제 사회에서 체면이 서지 않도록 일본이 정식으로 사죄하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뗏뗏이 정의와 사죄를 주장하고 가해자는 반성하며 사죄를 하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연대감을 가지고 일본의 만행을 알려 억울한 피해자들이 정식 사과를 받음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진실된 화해와 평화로 가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활동은 일본 사람들을 증오하려는 의도가 아닌 올바른 역사를 알려서 일본인들도 일본의 반인륜적인 행위와 만행에 대해 반성하고 억울한 피해자들 편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본은 미국사람들이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매우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일본이 가했던 만행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미국시민들에게 영화, 전시회, 발표 등등으로 일본의 잔인한 반인륜적 사실을 알려 일본 정부가 사실을 숨기지 않고 사과하기까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꼭 일본의 정식 사죄를 받아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 사할린에 대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 저는 10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가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한국에 대한 역사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러시아는 아주 먼 나라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사할린에 한인들이 산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러시아에 사는 사할린 한인들과의 만남이 궁금했고 방문이 기대했습니다. 강제징용으로 한인들이 사할린에서 고생했다는 기본적인 것만 알았습니다.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들의 차이점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이해했습니다.

사할린 한인들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더욱더 사할린 한인들의 역사를 배워 미국에서도 '위안부'와 함께 사할린 한인들의 강제징용의 역사를 알리고 싶습니다.

많은 미국 친구들이 (미국 교수님도 포함) 사할린 한인들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며 알려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할린에 '위안소'가 10개 쯤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할린 방문 중에 위안소의 위치를 찾아 방문하고 사진으로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위치를 아는 분이 없어 방문을 못했습니다. 생존하고 계신 분이나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도 싶었으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다. 지금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에서 많은 활동가와 연구원들이 소중한 역사를 기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세대들이 겪으신 역사는 아프지만 기록하고, 보존되어야 하고 후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1세대의 아픔과 고통이 헛되지 않고, 절대 잊혀지지 않도록 남겨야 하는 소중한 역사입니다. 사할린에서 한인들이 역사 보존에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1세대, 2세대들의 이야기와 경험들을 듣고 기록하며, 사진들, 또 오래된 물품들을 버리지 마시고 간직하고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사할린의 역사가 일본에 의해 그들의 반인륜적인 만행이 미화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사할린 1세대들의 한과 고통도 꼭 풀어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할린 방문을 통해 좋은 분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따뜻한 사할린 한인들의 마음과 정을 듬뿍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겪어 넘기시며 깨끗하고 멋지게 살아오신 사할린 한인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보냅니다. 절망 앞에서 번치 않고 애뜻하게 조국을 사랑하는 사할린 한인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는 미국 달라스와 거리는 멀지만 따뜻한 사할린 한인들을 만나 마음은 아주 가깝게 느껴집니다. 제가 사할린에서 보낸 시간들이 모두 귀하고 소중합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마음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사할린 한인들의 역사를 배우며 미국과 해외에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사할린 한인들을 위해 노력하고, 기여하며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바쁘신 중에 '귀향'과 '에움길' 보러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상영을 가능하게 도와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 텍사스, 미주리, 애트란타, 시카고, 미시건주 여러곳에서 '위안부' 사실을 알리려고 '귀향'을 상영했습니다. 하지만 사할린 한인들과 함께 한 상영은 저에게는 다른 때와 비교할 수 없이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진지하게 보시고 관람 후에 저를 찾아 눈물 흘리시며 일본 강제 징용자의 자녀로 이 영화를 볼 때 아픔이 두 배였다고 말씀해주신 것 기억합니다.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사할린 한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저도 잊지 않고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따뜻한 배려와 친절에 오래된 친구나 가족처럼 마음 편하고 가깝게 느꼈습니다. 또한 경험과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조금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벌써 많이 그립습니다. 사할린에서의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마음 깊이 간직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할린주에 25만4000명의 여성이 거주

사할린주 통계청이 3·8절을 앞두고 사할린주 여성에 대한 몇 가지 통계자료를 준비했다.

사할린주에는 여성 25만4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전체 거주민의 52%에 해당한다.

사할린과 쿠릴지역 여성의 평균 연령은 41세로 남성보다 4.8년 더 높다. 남성 1000명 단위당 여성은 1075명(러시아 연방에서는 1156명)에 해당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세-24세(기혼 포함) 연령대에서는 남성의 수가 여성보다 1.4배 더 많은데 도심에서는 1.2배, 지방에서는 2.2배 더 많다.

여성의 수가 우세해지는 연령은 45세 이후부터로 조사되었다.

여성 40세-50세 연령의 그룹은 50세-60세 연령의 그룹보다 3.2배 더 많고 현재는 14.6%이다.

고령일수록 여성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그룹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더 많다.

100세 이상 장수한 여성은 10명(도시에서 7명, 지방에서 3명)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평균수명은 76세이고 남성은 65세이다.

2018년에는 공식적으로 3700 가정이 탄생했고, 혼인한 100쌍 중 75쌍이 이혼했다.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하게 경제 전반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가장 여성적인 업무 분야는 보건, 교육, 호텔 및 요식업, 회계업무, 공공 및 사회적 서비스 제공 업무이다.

판매업, 호텔 및 요식업 분야에서 여성의 수는 남성의 수보다 2.4배, 보건 분야에는 5.1배, 교육 분야에는 6.7배로 여성이 월등히 많다.

사할린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교육적 수준은 남성보다 앞선다.

전체 취업자 중 고등교육을 이수한 여성은 46%, 남성은 34%이고 중등 직업교육은 여성이 37%, 남성은 31%에 해당되었다. 취업수준에서 여성이 60%, 남성은 72%이고 등록된 무직의 여성은 46%라고 사할린주통계청 홍보실이 전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нстантин Сек завоевал золот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шахматного блиц-чемпионата

В Хабаровске прошел чемпионат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по шахматам. Турнир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три дисциплины — блиц, быстрые шахматы (рапид) и классические. Первым видом программы стал блиц.

Участниками мужского блиц-чемпионата были 58 шахматистов (среди которых — четыре представите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ни сыграли 11 туров по швейцарской системе.

Рейтинг-фаворит турнира Константин Се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ачал чемпионат с семи побед. В восьмом туре он сыграл вничью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мастером из Хабаровска Дмитрием Лабунским, но затем заставил сдаться еще двух соперников.

В итоге за тур до финиша островитянин обеспечил себе чемпионский титул. И даже поражение в заключительном туре от Романа Янченко из Комсомольска-на-Амуре, ставшего бронзовым призером, не испортило общего впечатления. Результат Константина Сек — 9,5 очков из 11 возможных.

Второй призер — Виталий Бачин из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9 очков), третий — Роман Янченко (8,5 очков).



Четвертое-пятое место разделили Владислав Радченко из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Дмитрий Лабунский из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Они набрали по 8 очков.

На 1 очко от них отстала большая группа шахматистов. Среди них — международный мастер Алексей Роман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торый по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показателям занял девятое место.

— Организовано в Хабаровске все хорошо. В этот раз попал случайно только на блиц.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буду думать, как подобрать дни отпуска, чтобы нормально сыграть в большей части программы. От блица — двойственные впечатления. В принципе, попасть в топ-10 на таком турнире неплохо. Тем более что по блиц-рейтингу я в неё и не входил, был 17-м.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на тройку призеров я реально не претендовал, а обе проигранные партии заканчивались какими-то конфузами с одноходовыми зевками фигур чуть ли не на выходе из дебюта, — поделился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т турнира Алексей Романов.

Виталий 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брал 6,5 очков. У него — 18-е место. Юный Артем Хуснулгатин, который впервые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мужском чемпионате такого уровня, занял 38-е место (5 очков), что тоже можно считать успешным выступлением,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й минспорт.

새고려신문 살리자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О ЛЮБВИ И ВЕСНЕ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подборку стихотворений сахалинских поэтов о бытии, любви и весне.

Ким Цын Сон
Из сборника «Пылающие листья»

*Любовь сведет нас
И умчится, и не подскажет-
Ждать или не ждать.
Но стоит даже на день разлучиться –
Является
опять.*

*Хлопья белые,
сопки белые,
бел простор
и белы дороги.
Лишь ворона топорщит перья,
видно, хвастает черным цветом.*

*Проснулся вдруг – дождь по стеклу стучит.
Сто раз я умолял – цветов не трогай!
Исполнилось: луч Солнца на цветах.*

*Как мне любить тебя не просто!
Но без любви еще трудней.
Моя любовь к тебе,
как этот остров –
моя судьба.
Я счастлив ей.*

*Луна на облаке и в озере.
И мы над облаком и озером
по Млечному Пути плывем.
Будь осторожен в хрупком чёлне,
будь осторожен в хрупком чёлне,
и не задень луну веслом.*

(Перевод с корейского
Г.Прашкевича и В.Горбенко)

Сергей Ян
Из сборника «Тихое счастье»

*О, если б знать,
Когда любовь придёт.
Её шаги прозрачные услышать.
Глазами звёзд в глаза ей заглянуть
И мимо не пройти.
О, если б знать!
Себя бы не растратить,
Чистые слова не расплескать.
О, если б знать...*

*Отражается небо
В каждой росинке твоей,
О хризантема!*

*Я бы с дождями ушёл,
Если бы не было вас.*

Мама

*Вся жизнь,
Как взмах крыла,
Как след звезды.
Как капелька росы
Сверкнула
И пропала вмиг,
Оставив свет
На белых лепестках.
И боль, и нежность, и любовь...*

*Папоротник реу.
Кукушка года считает,
Улитка с трудом
Заползла на ладонь лопуха.
Всё как в детстве моём,
Только волосы в инее белом.
Всё как было тогда,
Только мама ушла
Давно...*

*На семи ветрах, небо в облаках,
Паруса дугой.
Я совсем другой доберусь домой,
Припаду к губам.
Всё, что есть отдам и услышу вновь
Шёпот зрелых трав.
Ты была права. Я опять не прав...*

Чан Тэ Хо
Из сборника «По дороге домой»

*Четверостишия -песчинки...
Частицы дум и размышлений,
Крупинки или половинки
Однажды схваченных мгновений.*

*Мне прозу жизни, кажется, порой
Намного проще описать стихами,
И день холодный, пасмурный, сырой
На миг зальётся не дождём ... лучами.*

*По талому снегу я ночью прошелся,
По талому снегу я мысли гонял
И незаметно на звезды набрёлся,
Но, оказалось, я в ... луже стоял.*

*Без зверья мы совсем озвереем,
Без любви - не увидим детей.
Без души мы поля не засеём,
А без Бога все будет страшней.*

*Вера, надежда, любовь...
Ноги истоптаны в кровь,
Но нет в этом мире иной
Силы, ведущей домой.*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82 руб. 1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 РК назначил новых послов в Китае, Японии и России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назначил новых послов в Китае, Японии и России. На пост посла РК в Китае, который два месяца оставался вакантным, назначен бывший советник президента по политическим вопросам Чан Ха Сон, на пост посла в Японии - бывший заместитель начальника упра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Нам Гван Пхё. На посту посла в России У Юн Гына заменит нынешний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Ли Сок Пэ. Посол в США заменён не будет, эту должность продолжит занимать Чо Юн Чжэ. Новый посол РК в Китае Чан Ха Сон оценивается как человек с глубоким понимани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который, как ожидают, будет правильно выстраивать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Сеулом и Пекином, в том числе,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области. Новый посол РК в Японии Нам Гван Пхё имеет опыт работы в этой стране и в отдел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глашений МИД РК. Вновь назначенный посол РК в России Ли Сок Пэ считается одним из ведущих экспертов по этой стране.

Президент РК дал оценку второму саммиту КНДР-США

4 марта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ровёл заседание Сове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ходе которого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скорейшую подготовку проектов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 которых описана в совместных Пханмунчжомской и Пхеньянской декларациях. Он призвал разработать план поддержки диалога КНДР и США с помощью развития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рамках санкций СБ ООН. Мун Чжэ Ин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прошедший в Ханое второ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й саммит. Он, в частности, выразил сожаление по поводу результатов встречи, одновременно отметив, что саммит позволил подтвердить очень важный прогресс в диалоге двух стран, достигнутый к настоящему моменту.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в Ханое был затронут вопрос о полном демонтаже ядер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Ёнбёне, что указывает на появление реальной возможности на ликвидацию этого объекта под контролем США. Если Пхеньян пойдёт на это, то это будет означать начало необратимого этапа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Большим прогрессом президент РК назвал и то, что лидеры КНДР и США обсуд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частичной отмены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анкций. Мун Чжэ Ин отметил, что сегодня стороны не критиковали друг друга и не повышали напряжённость,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им не удалось достичь конкретных договорённостей. Они выразили неизменное взаимное доверие и готовность к продолжению диалога. Мун Чжэ И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оследний саммит да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встреча в Ханое является этапом на пути к большой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совета президент ознакомился с рабочими докладами главы МИД Кан Гён Ха, министра по вопрос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Чо Мён Гю,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Чон Гён Ду, обменявшись мнениями по оценке итогов второго саммита КНДР-США и дальнейшим действиям.

В Москву прибыл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После саммита КНДР и США в Ханое российская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ы активизируют диалог по вопроса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елегация КНДР во главе с заведующим международным отделом ЦК ТПК Хан Ман Хёком посетила офис российско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ЛДПР. Она прибыла в Москву для участия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 случаю 70-летия подписания соглашения об экономическом и культур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О данном визите ранее сообщили в посольстве РФ в Пхеньяне на своей странице в Facebook. Сообщается, что стороны намерены обсудить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6 марта в Москве состоится заседание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вопроса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редыдущее заседание проходил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Пхеньяне. В этом году в нём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ведомств Севера.

ВНД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РК превысил 30 тыс. долларов

Валовой национальный доход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РК составил в прошлом году 31.249 долларов, впервые преодолев 30-тысячную отметку. Как сообщили в Банке Кореи, он повысился на 5,4%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РК стала седьмой по счёту страной с населением более 50 млн человек, сумевшей достичь отметку в 30 тыс. долларов. Первые места в списке занимают США, Япония, Германия, Франция,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Италия. В среднем на переход от 20 до 30 тыс. долларов уходит 9,7 года. В случае с РК данный срок составил 12 лет, что связано с последствиями глобальн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кризиса. ВНД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в 20 тыс. долларов РК достигла в 2006 году. (RKI)

США и Южная Корея официально прекратили крупнейшие учения

Крупнейшие американ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е учения Key Resolve и Foal Eagle, которые сильно нервировали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и зачастую провоцировали напряжённость вокруг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ушли в историю. Союзники официально заявили об их прекращении. Вместо них теперь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маневры гораздо меньшего масштаба. Они стартуют уже завтра и продлятся до 12 марта.

Специалисты по Корее уже давно называли весну "сезоном корейского обострения". Обычно все происходило по стандартной схеме: США и Южная Корея каждый год с конца февраля-начала марта и вплоть до конца апреля проводили крупные учения Key Resolve и Foal Eagle. Первые из них являлись командно-штабными маневрами и представляли собой в основном "войну на компьютерах", когда все перемещения осуществлялись в виртуаль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без серьезного задействования реальной техники, а вот на вторые мобилизовались сотни тысяч солдат Южной Кореи и США, тысячи единиц техники, зачастую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бомбардировщики, истребители-"невидимки", атомные подлодки и авианосные группировки. Все это сопровождалось стрельбой, развертыванием частей, отработкой сценариев не только обороны, но и атаки, вплоть до "ликвидации руководства КНДР" и так далее.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а это реагировала как могла, так как ответить адекватно на те же авианосцы США КНДР не имела возможности. А потому делала то, что могла - обычно производила новые ракетные испытания. Эт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суждали союзники и наращивали давление. Такой сценарий обычно продолжался до конца апреля, когда плановые маневры завершались, а с очередным годом все возобновлялось. Конечно, бывали ситуации, когда Пхеньян не ждал очередной весны и устраивал свой раунд ракетно-ядерного "фейерверка", но весна всегда была тем периодом, когда рост напряженности был предсказуем и неизбежен. Союзники объясняли, что "не могут не проводить учения" и что они "только оборонительные", но КНДР, которая не могла противопоставить что-то реальное тем же самым современным бомбардировщикам, истребителям и авианосцам, в это не особо верила.

Замкнутый круг прервалс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огда началось связанное с Олимпиадой межкорейское потепление. Теперь же, похоже, США и Южная Коре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делали шаг, который позволяет надеяться, что весной в Корею можно будет любоваться только цветением вишни, а не "парадами" американской 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на дорогах и в море, и ответными запускам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кет.

Как заяв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сегодня в ходе 45 минут состоялся телефонный разговор между главами военных ведомств РК и США. В ходе беседы стороны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отныне не проводить маневры Key Resolve и Foal Eagle. Первые заменены на учения "Тонмэн", но гораздо меньшего масштаба и уровня. Добавим, что Key Resolve являлись "наследниками" знаменитых маневров Team Spirit.

Со вторыми произошло аналогичное: маневры Foal Eagle стали достоянием истории. Вместо них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учения масштабами отдельных батальонов, а имени вообще никакого не будет.

Для понимания масштабов повторим: на Foal Eagle иногда мобилизовывали до полумиллион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олдат и до 50 тысяч американских, а также авианосцы, подлодк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бомбардировщики. Теперь же это "уровень батальона и ниже". В одном пехотном батальоне обычно 200-500 человек или 10

танков. Сокращения очевидные.

Тут же был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о заявление, что новые учения "Тонмэн" стартуют 4 марта и продлятся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семь дней с перерывом на выходные. То есть завершатся 12 марта, но в субботу-воскресенье 9-10 марта военные будут отдыхать.

Как пояснили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военном ведомстве, это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в связи со снижением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а также в целях "поддержк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усилий по полной и необратим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Если говорить простым языком, то возможность войны сильно снизилась, а также не хотят мешать переговорам и провоцировать КНДР.

Есть также и другая подоплека нынешней "реформы" учений. Дональд Трамп уже давно говорил, что все эти демонстрации военной силы влетают в копеечку бюджету США, а потому надо понимать, во-первых, зачем они, а во-вторых, кто за них будет платить. В ходе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которую Трамп провел 28 февраля в Ханое сразу после переговоров с Ким Чен Ыном, американский лидер уже тогда вновь дал понять, что с учениями "надо что-то делать". Он сказал, что они "стоят огромных денег" и назвал примерный масштаб "ценника" за эти военные игры - "сотни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Кроме того, США явно были недовольны той неуступчивостью, которую проявили южные корейцы при недавнем согласовании вопроса о том, какую часть Сеул должен брать на себя в покрытии расходов на пребывание американского контингента (28 500 человек) в Корею. Тогда американцы и пригрозили, что если корейцы будут упорствовать, то США найдут для урезания "другую статью" расходов. Судя по всему, ею стали как раз военные учения.

А в целом заявления о том, что Key Resolve и Foal Eagle будут отменены и вместо них введут учения гораздо меньшего масштаба, США и Южная Корея делали уже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назад. Понятно, что все это отвечает поддержке общего подхода США и КНДР, которые несмотря на провал переговоров в Ханое решили "не ссориться и не обижаться, а пытаться продолжить разговор". Но в целом отмена учений была запланирована ранее, и не саммит в Ханое стал причиной их прекращения. Из крупных регулярных американ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маневров теперь остались лишь Ulchi-Freedom Guardian, которые обычно проводятся в августе. Они были "временно прекращен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 можно ожидать, что их тоже как минимум модифицируют, либо также полностью заменят на что-то более "спокойное" и "скромное", как это произошло только что с Key Resolve и Foal Eagle.

В любом случае, будь это спор о деньгах, либо бурная оттепель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либо желание продолжить переговоры в спокойной обстановке -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реальных причин, отмена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х маневров и замена их на символические учения стал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ольшим шагом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к достижению постоянного мира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есна в Корею теперь не будет периодом "регулярного и гарантированного обострения". Можно по-разному относиться к каждому из лидеров, но все это нужно записать в актив глав трех напрямую задействов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 США,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стается надеяться, что их последователи пойдут по этому же пути, а не решат заняться реанимацией "военных фениксов из пепла", даже если временам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будут иногда пробуксовывать, как это в определенной степени случилось на саммите КНДР и США в Хано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Лидерами проката РК стали отечественные фильмы

В минувшие выходные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инотеатрах в первую пятёрку по числу просмотров вошли тольк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фильмы. Об этом 4 марта сообщили в Корейском комитете развития кинематографии со ссылкой на рейтинг веб-сайта «Box Office», отслеживающего кассовые сборы.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рейтинга оказалась картина «Сопrotивление: история Ю Гван Сун» (A Resistance), которую в период с 1 по 3 марта посмотрели 606.076 человек. Общее накопленное количество просмотров за выходные составило 791.052. Картина расска-

зывает о жизни героини Первоапрельского движения. Фильм с очень низким бюджетом – менее 1 млн долларов – сумел обойти коммерческие кинопроекты, на создание которых ушло свыше 10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фильм «Сваха: Шестой палец» (SVAHA : The sixth finger), который,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посмотрели 2 млн 148 тыс. 535 человек. В третий период показателем составил 471.139 человек.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фильм «Свидетель». Его показатель за выходные составил 372.681 просмотр, а накопленная отметка – 2 млн 288 тыс. 441 просмотр. На четвёртой позиции «Экстремальная работа» с показателем 330.032 и 16 млн 29 тыс. 822 человека. Премьера картины состоялась 23 января. По кассовым сборам она занимает первое место на отечественном рынке - 137,6 млрд вон или 122,3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 больше, чем у предыдущего лидера «Битва при Мёнряне». Наконец, на пятом месте картина «Король велоспорта Ом Бок Тон». Её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81.082 просмотра за выходные и 154.332 просмотра с момента премьеры. (KBS World)

На Сахалине подвели итоги IV рег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закрытия состязаний прошла 5 марта в конгресс-холле ТДЦ «Стол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роме конкурсантов в зале собр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ласти и руководители предприятий региона. Финалистов приветствова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Наумов.

По итогам чемпионата жюри определило призеров и победителей. Всего было разыграно 67 золотых, 47 серебряных и 43 бронзовых наград. Еще трое участников отдельно отмечены з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мастерство.

От имени временно исполняющего обязанности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золотые медали победителям вручил Сергей Наумов. Он пожелал молодым профессионалам дальнейших успехов и карьерного роста.

- Прошло совсем немного времени с момента старта чемпионата и вот мы уже чувствуем победителей.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регион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лагодарны вам за ваше упорство и стремление к победе. Проигравших в эт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нет. Несомненно, ваши умения и навыки будут всегда востребованы. Вы очень нужны области и рассчитываю, что свою дальнейшую жизнь свяжете с островной землей, получив здесь достойную работу, - сказал Сергей Наумов.

В рамках чемпионата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обширная деловая программа. Ее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около ст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работодателей, социальных партнеров, работников учреждени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Кроме того,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профориентацио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За пять дней чемпионата его конкурсные площадки посетили более двух тысяч учащихся островных школ.

- Цифры говорят сами за себ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нашем чемпионате участвовало более ста человек в 24 компетенциях. Сегодня в нем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260 ребят по 47 компетенциям, в том числе по 23 новым для нашего региона, - рассказ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лена Бабина.

Побед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отбороч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за право представить регион в финале VII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 2019. Отбороч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йдут в марте-апреле 2019 года в разны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Финал VII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состоится в мае 2019 года в Казани.

На портале dv2025.rf началось голосование за меры по развитию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о 2 марта на специальном портале dv2025.rf, где каждый житель России может оставить свои предложения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ткрылось голосование по соци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для определения тем больше всего волнующих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приглашает всех неравнодушных россиян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ключевых направлений развития 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системе уж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ось более 69,7 тысяч пользователей, которые оставили более 15,4 тысяч предложений. Поступившие предложения будут учитываться при формирова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о 2025 года.

Как отметили в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цель опроса выявить, что вкладывают жител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в понятие «комфортная жизнь».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помогут выявить основные болевые точки, а также правильно сформировать в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приоритеты социального блока.

Отметим, специальный портал dv2025.rf заработал 15 декабр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ставить предложение, необходим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на сайте, указав информацию о месте своего постоя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номер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и дату рождения. Данная информация необходима для корректной обработки поступающих предложений с учетом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 той или иной возрастной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группе.

Количество предложений, которые может оставить пользователь, неограниченно. Касаться они могут как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в целом, так и развития конкретно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егиона или отдельного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или территории.

На сайте можно не только внести свое предложение, но и поддержать предложения других пользователей, чтобы они не остались незамеченными, а также проголосовать за приоритет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 конца января на портале также действует модуль экспертной работы.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момент в систем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ось 357 экспертов. В рамках раздела

для экспертной работы предусмотрена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ачи развернутых документов, включая проекты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х актов, планов развития территорий, экономических обоснований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отд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Здесь эксперты могут оставлять комментарии и дополнения к размещаемым документам, участвовать в закрытых форумах и в подготовке аналитических материалов.

Напомним, Национ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и на перспективу до 2035 года должна быть подготовлена до 1 сентября 2019 год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оручение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дал по итогам четвертого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Программа должна объединить мероприят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и госпрограмм, долгосрочные отраслевые планы ведомств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компаний,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всех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При этом она должна содержать предметные конкретные измерения и измеримые показатели. Среди ключевых направлени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 обеспечение опережающей динамики в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е (жилье, ЖК, транспортная доступность,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культура и спорт),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и наук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межпоселкового газопровода «Восточный» начало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ся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газифик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озволит обеспечить голубым топливом резидентов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Горный Воздух», а также 14 домовладений в трех микрорайонах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встречи глав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ПАО «Газпром» Алексея Миллера активизирована работа по выполнению программы газифик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же начат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азопровода «Восточный»,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и обеспечит газификацию восточной и южной ча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кже коллеги из «Газпрома» продолжаю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ежпоселкового газопровода в Тымовском районе. В этом году начнутся работы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Макаровском, Долинском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отработывают все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о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газовых котельных и газопроводов низкого давления,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Сидоренко.

Протяженность подземного газопровода «Восточный» составит 8,7 километра. Он пройдет по восточной части города от ТЭЦ-1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 Ботанического сада. Газопровод проложат под проезжими частями улиц Украинской, Карьерной и переулка Энергетиков. Он пересечет лыже-роллерную трассу, реки Рогатку и Уюновку, горнолыжную трассу и канатную дорогу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работы ведутся на 4 участках. Задействовано 27 единиц строительной техники, 14 сварщиков, 53 рабочих. Администрац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араллельно, согласно плану-графику синхронизации, вед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нутриквартальных сетей, - пояснил заместитель начальник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эксплуата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Газпром газораспределение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Андрей Стариков.

Для прокладки газопровода в условиях стесненной городской застройки разработаны специальные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которые прошли согласование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ют завершить до конца года.

Время ожидания в сахалинских медучреждениях сократится вдвое

На заседании коллег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здрав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звал реализацию этого проекта одним из приоритетов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чать работать по принципам «бережливости» поликлиник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должны до конца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 Суть проекта в том, что пациенты получают необходимый объем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проводя в учреждениях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гораздо меньше времени, - отметил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Нельзя допускать, чтобы человек с 5 утра стоял в очереди для записи на прием, месяцами ожидал слож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видел только хмурые лица врачей. Пациент, приходя в больницу или поликлинику, должен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комфортно и встречать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таких условиях у человека будет желание уделять больше внимания собственному здоровью, что,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приведет к увеличению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уже есть положительные примеры реализ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ережливая поликлиника». В 2017 году первыми работу в новом формате начали детская поликлиника и поликлиника

№2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здесь вдвое сократились очереди в регистратуру, время ожидания приема специалистов и медицинских процедур.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оект в регионе расширяется: недавно к нему подключились областная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поликлиника, поликлиническое отделение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а также корсаковская поликлиника. В этом году новую модель внедрят еще в 20 учреждениях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различны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 Принципы «бережли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 поликлиниках не только на Сахалине, но и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омогают внедрять специалисты госкорпорации «Росатом»,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ный внештатный терапевт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ласти Мила Тен. - Федеральный проект нацелен на то, чтобы беречь время пациента и на то, чтобы он получал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в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ях. Сахалинцы сразу замечают положительные моменты и благодарят сотрудников наших «бережливых» учреждений.

Та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е №2 привычную регистратуру с окнами разделили на картохранилище, call-центр, который занимается только звонками, и открытую регистратуру. Пациентов и сотрудников разделяет лишь стойка высотой по пояс, благодаря чему между посетителями и персоналом исчезают барьеры в общении.

Разработана новая маршрутизация пациентов - здоровых, кто пришел в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ом порядке, и больных, кому требуется неотложная помощь, развели по разным потокам.

Также в поликлинике модернизировали работу процедурного кабинета и ввели электронную запись на сдачу анализов. Все результаты фиксируются в электронной истории болезни, и любой врач може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историей лаборато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ациента.

Была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а организация работы врачей. Рабочие места специалистов отвечают системе «5С», что значит «сортируй», «соблюдай порядок», « содержи в чистоте», «стандартизируй», «совершенствуй». Любой документ медработник может найти за полминуты. Рациональ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времени позволяет больше времени уделять пациентам.

- Современная систем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евозможна без цифровизации - повсеместного внедре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электронн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системы, личного кабинета пациента, рабочего места врача и медицинской сестры, доступа к электронным обучающим ресурсам, а также телемедицин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Мы должны шаг за шаг на ногу со временем, применяя все лучшие наработки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остоянно развивать его,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водя итоги коллегии, гла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тил, что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тоят амбициозные задачи, но все они выполнимы. Чтобы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ощутили положите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в работу по улучшению условий и качества оказания медпомощи должен включиться каждый сотрудник медицинской отрасли. Напомним, что на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я этой сферы в 2019 году направлено 32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 завершении мероприяти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ветил на вопросы медработников и вручил награды руководителям нескольких учрежден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сех женщин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здравил с наступающим 8 марта, и каждая получила в подарок розы и тюльпаны.

Уже более 350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учили единовременную выплату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цифрового телевидения

Данная мера поддержк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 этом году малоимущим семьям и малоимущим одиноко проживающим гражданам в связи с переходом на новый цифровой формат телевидения. Уже приняты решения о назначении выплаты 355 заявителям на общую сумму более 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Единовременная выплата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доставку, установку и настройку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приема цифрового телевизионного вещания, а также на оплату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установки расходных материалов,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 размере фактических расходов, но не более 15 тысяч рублей.

- Данная выплата является компенсационной. Сначала жители приобретают необходим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цифрового телевидения, а затем на основании подтверждающих документов им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ыплата, - пояснила Елена Степанов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модернизации социальных выплат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региона. - Возмещению подлежат документально подтвержденные расходы, понесенные в течение 12 месяцев, предшествующих дате обращения с заявлением. Количество приобретаем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областным законом не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Оформить единовременную выплату можно в отделениях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в течение 2019 год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동포 안식처'...20주년 맞은 인천사할린복지회관

일본 지원금 끊겼지만 정부가 부족분 지원... '정성으로 어르신 돌볼 것'

인천지역 사할린 동포들의 보금자리인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았다.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회관 1층 강당에서 기념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김윤희 대한적십자사 부회장 등 내빈들과 후원자·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했다.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580-3번지에 자리한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은 사할린 동포들이 생활하는 시설(연면적 2천533㎡·지하 1층~지상 2층·정원 100명)로 1999년 3월 2일 개관해 현재 사할린 동포 89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사할린 동포는 일제강점기(1910년 8월 29일~1945년 8월 15일) 때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로 징용돼 대부분 탄광 등지에서 일하다가 해방 뒤에도 귀국하지 못했다.

이후 50여 년을 사할린에서 지내던 이들은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수교를 맺으면서 국내로 영주 귀국한 뒤 이곳에 입주했다.

현재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할린 동포들은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로 평균 나이는 85세이며 가족을 러시아에 두고 외로이 지내거나 병환으로 고생하고 있어 하루라도 보살핌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은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대한적십자사·후원자·일본 정부로부터 매년 운영비 13억3천여만원을 지원받아 운영됐다.

2017~2018년에는 일본 정부 지원금(3억원)의 지급이 만료돼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행히 올해부터 우리 정부가 3억원을 지원하면서 어려움이 해결됐다.

현재 이곳에는 손정희 제8대 관장을 포함한 직원 2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관계자는 5일 "회관 직원들은 '사랑은 가족처럼 섬김은 내 몸처럼'을 슬로건을 내걸고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을 정성으로 돌보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복지·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남동사할린센터. 프로그램 · 강사 간담회 개최

남동다문화사업소(소장 심연숙)는 최근 남동사할린센터 프로그램 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1일 구에 따르면 사할린 한인 거주 비율이 안산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며 2014년 7월 남동사할린센터 및 경로당을 개관, 취미·교양 및 전통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구는 2019년 2월 프로그램 강사 공개 모집으로 석사학위 이상과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등 총 6명의 강사를 채용했다.

취미·교양 프로그램 중 글쓰기반과 실버체조반은 신설 강좌로 각각 주 2회 운영하며 특히 글쓰기반은 등단 문인의 지도로 연말에 문집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통문화 프로그램 중 민요반은 선소리 산타령 보유자로부터 이수 및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의 강의로 천사(인천 플러스 사할린) 민요 합창단을 조직해 각종 행사에서 공연할 계획이다.

2007년 영주귀국해 남동사할린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한 주민은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활동이고 한국무용반에 참여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며 "작년 경로당 발표회에서 민요와 한국무용을 선했는데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보다 멋진 무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내외신문]

[우리말로 깨닫다]

아재 개그

아재 개그는 <아재>가 하는 개그입니다. 아재의 의미가 '아저씨의 낮춤말' 정도로 해석이 되니, 나이가 좀 있는 남자가 실없는 농담, 웃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 <오야지 개그>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야지가 아버지라는 의미이니까 '아버지의 농담'이라는 뜻입니다. 나이 든 남자의 농담은 국경을 초월해서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웃기려고 애쓰는 아재들의 마음은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나이 든 남자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세상을 밝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재 개그가 자랑스럽네요.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아재 개그를 보면 하는 사람은 무지 웃긴데 듣는 사람의 반응은 제 각각입니다. 보통은 헛웃음을 웃는 경우가 많고, 얼굴 표정이 잠시 굳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모습으로든 서로 웃게 됩니다. 싱겁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재 개그는 여러 번 생각하면 웃긴 경우도 많습니다. 어이없다고 이야기해 놓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어이없는 아재 개그를 했다고 말입니다. 뜻 밖에도 아재 개그는 이렇게 파급력도 있습니다.

아재 개그의 주요 소재는 말장난입니다. 한자로 이야기할 때는 언어유희(言語遊戱)라고도 합니다. 비슷한 발음의 단어를 이용해서 웃기는 거죠. 동음이의어는 오래 전부터 개그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군대에서 전역했어요.'라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점심은 안 했나?'라고 반응하면 아재 개그가 됩니다.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다가 표정이 잠시 굳는 거죠.

예측이 되는 말장난은 아재 개그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는 게 아재 개그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반응입니다. 청자의 허점을 찌르는 빠른 말장난이 핵심입니다. 어이없지만 웃어줄 만한 개그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아재 개그는 언어 감각이 좋아야 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재 개그에 천재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능계로 나가거나 글을 써야 할 겁니다.

물론 아재 개그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아재 개그를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생각나는 아재 개그를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민 끝에 열 개 중 몇 개만 입 밖으로 내 놓는 겁니다. 너무 많이 아재 개그를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차갑습니다. 아재 개그계에서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아재들의 피나는 노력이 아재 개그를 오래 가게 합니다. 치고 빠질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아재 개그를 많이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지 않게 되는 현상에도 주목합니다. 반응이 차가워서인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아재 개그에 싫증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도 아재 개그가 신이 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럴 때가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웃기든 덜 웃기든 간에 아재 개그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생동감이 있습니다. 눈도 반짝입니다. 뭔가 궁리하고 있는 표정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아재 개그에 흥미를 잃었다는 이야기는 삶에 의욕이 꺾였다는 표시입니다. 우울하죠.

아재 개그를 다시 살리는 방법은 반응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많이 웃어주고 맞장구를 쳐주면 아재 개그도 되살아납니다. 아재 개그는 반응을 먹고 삽니다. 많이 웃는 부인 옆에 아재 개그를 하는 남편이 있는 법입니다. 한편 <아재>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방언에서 '아주머니(강원도), 고모, 이모, 작은어머니(함경북도)'도 아재라고 합니다. 아재 개그를 위한 아주머니들의 노력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안산 고려인문화센터 '너머' 법무부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인 체류 및 지원을 위한 생생한 목소리 전달

사단법인 너머는 지난 2월 22일 법무부외국인정책본부 차규근 본부장은 동포정책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너머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안산 고려인문화센터를 방문해 고려인 동포 및 지원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안산 외국인 주민 지원분부를 방문한 차규근 본부장은 고려인문화센터에 도착해 먼저 고려인들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는 고려인문화센터 부속 전시관을 찾았다.



▲ 고려인문화센터 김영숙 센터장이 법무부본부장 외 관계자들에게 고려인문화센터 전시관에서 고려인 동포의 이주역사와 현재를 소개하고 있다.(사진 너머)

전시관을 관람하고, 고려인문화센터 김영숙 센터장의 설명을 들은 차규근 본부장은 "그전까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던 고려인들의 상세한 역사를 알게 돼 의미가 있

다"고 소감을 밝혔다.

간담회는 김영숙 센터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차규근 본부장의 인사와 법무부 관계자 소개, 고려인 동포 소개로 순으로 이어졌다. 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동포들이 삶에서 실제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법무부에서 답변하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고려인 동포 이 드미트리(42세 우즈벡국적, 비자H2)는 "3년마다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안정한 체류비자에서 좀 더 안정적인 비자인 F4(동포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지방 소도시로 가족이 이사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는 인구 20만 이하의 지방 소도시에서 2년 근속할 경우 H2에서 F4로 비자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비탈리(33세, 무국적)는 "소련 해체 시 타지키스탄에 거주했다가 내전으로 94년에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했는데, 이주 시점에 대한 문제로 국적을 상실해 무국적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그 외 F5(영주권) 취득에 대한 완화 문제 등 의료소외 및 안정적인 체류를 원하는 사례들과 국내적응 교육 등의 요청들도 함께 언급

됐다.



▲ 간담회에는 법무부 본부장이 하 인천청장, 안산출장소장, 체류관리과장, 체류관리과 사무관등 2명, 고려인 및 안산 고려인문화센터장 등 고려인지원단체 관계자 12여 명, 안산시 관계자 2명이 참석했다.(사진 너머)

특히 법무부관계자의 외국인과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 (사)너머 관계자는 현재 고려인 동포의 체류가 일반 외국인과 달리 모국으로의 이주 형태로서 동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동포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영숙 고려인문화센터 센터장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감사의 표시하면서도, 정부와의 소통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모저모

(2면의 계속)

지원 신청은 3월 13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참가팀은 한정되어 있다. 게임은 3월 15일 18시 <승리> 종합기념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청년주도센터와 <승리> 종합기념박물관이 주최한다.

문의 전화 : 31-26-82, 내선 7, - 황 아나스타시아가 기획 총괄을 한다고 청소년이니서티브센터 홍보실이 전했다.

Молодым южно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лагают сыграть в "Риск"

"Риск" (разум, интуиция, скорость, команда) — это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ая игра среди молодеж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десь ты можешь проявить себя как эрудит, блеснуть знаниями по истории своей малой и большой Родины. Ответь правильно и быстро на 3 блока вопросов из разных областей знаний и получи приз.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могут сборные команды молодежи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до 30 лет. Допустимо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в команде от 6 до 10 человек. Подать заявку можно

Количество команд ограничено.

Игра состоится 15 марта в 18:00 в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Победа".

Организатором выступает центр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совместно с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ым комплексом "Побед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31-26-82, добавочный 7 — Анастасия Хван, координатор проект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у ЦМИ.

마슬레니짜를 기념하여 <러시아 - 나의 역사>

역사공원에서 민속합창단 공연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가장 즐겁고 떠들썩한 명절 중 하나가 마슬레니짜다.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모두가 다가오는 봄날의 따뜻함을 반긴다.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공원에서 대규모로 마슬레니짜를 기념할 준비를 하고 있다.

3월 9일 14시에는 디지털 박물관에서 화려한 마슬레니짜 축제가 조성된다. 러시아 사할린민속합창단 단원들이 먼 옛날 전통의식을 재현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현재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예술단 중 하나인 합창단은 사할린지역의 대표격으로서 사할린주 밖에서도 알려져 사랑을 받고 있다. 합창곡은 특별한 예술이기에 합창 참가자들은 공연마다 관객들에게 에너지를 심어 주고 있다. 합창단의 다양한 목소리와 넘치는 활력, 러시아 민요의 깊이와 누구도 무관심하게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손님의 날'에는 <조각보의 섬> 켈트(누비, 조각보) 스튜디오가 준비한 밝은 비대칭의 의상쇼가 즐거움을 더하게 된다.

여기 참가자들은 멋진 전통 켈트 액자, 켈트 코트, 켈트 옷웃, 켈트 재킷, 켈트 여성용 가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입장은 무료이며 문의와 신청은 전화 49-57-28로.

В честь Масленицы в парк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споет народный хор

Одним из самых веселых и шумных праздников, который любят детвора и взрослые, считается Масленица. Провожая холодную зиму, все радуются приближению весеннего тепла. Готовятся отметить Масленицу с широким размахом и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9 марта в 14:00 в интерактивном музее состоится красочное масленичное гуляние. Воссоздать обряды старины далекой помогут участ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го русского народного хора. Сегодня этот один из старейших коллективов — бренд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Его любят и знают далеко за пределами области. Каждым своим выступлением участники хора заряжают зрителя, ведь хоровое пение — особое искусство. Многоголосье и удивительная энергетика коллективного исполнения, глубина русской народной песни не могут никого оставить равнодушными.

В этот же день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порадует яркое дефиле костюмов от квилт-студии "Лоскутный остров". Его участники представят замечательные образцы традиционного лоскутного панно, преобразованные в пальто, куртку, жакет и даже дамскую сумочку.

Вход в музей свободный. Справки и запись по телефону: 49-57-28.

노글리키 한 상점에서 <자선 탁자> 등장

노글리키의 연금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한 달에 한 번 <자선 식품세트>에서 무료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라다> 상점의 <빈곤층을 위한 무상 양식>이란 행사는 두 번째 진행하고 있다.

한 달 전에 처음 무상으로 빵을 균등하게 공급한 것으로 시작으로 작은 상점의 관리자 타를라나는 상점 홀에 탁자를 놓고 여기에 빈곤층 주민들이 신선한 빵, 식용유, 설탕과 파스타 제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마련했다. 마카로브의 자선행사자들은 매월 이같은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В одном из магазинов Ноглик появился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й стол"

Каждый пенсионер или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й житель Ноглик теперь может раз в месяц абсолютно безвозмездно получить продукты из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корзины. В магазине "Лада" акция "Бесплатный хлеб нуждающемуся" проходит второй раз подряд.

В первый раз коллектив начал раздавать хлеб ровно месяц назад. Менеджер небольшого магазина Тарлана выставила в торговом зале стол, с которого любой нуждающийся мог взять свежую буханку, растительное масло, сахар или макароны.

Местные альтруисты планируют проводить акцию ежемесячно.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2019년 우리말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2019년 6월 1일은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쿨(글짓기)을 개최합니다.

• **공모대상:** 사할린 및 연해주·극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 (현지인)

• **공모부문:** 글짓기, 체험수기

• **공모주제:**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한 글만 받습니다.

• **공모기간:** 2019년 5월 중순까지

• **시상:** 상장과 한국방문권 비롯한 여러상품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콩쿠르 자료들을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아니면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브거리 37, 새고려신문사로 보내주시시오.

전화: 43-59-80, 43-72-94.

콩쿠르조직위원회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клама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mun»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mun»,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